



임기영, 신혼단꿈 대신 '10승 꿈'

‘새 신랑’ 임기영이 기록 없는 시즌을 외치며 제주도에서 칼을 갈고 있다.
KIA 타이거즈 임기영은 지난 12월 19일 차이 리더 김광음과 백년가약을 맺으면서 유부남 대열에 합류했다.
어깨가 더 무거워진 올 시즌 임기영은 신혼의 단꿈 대신 ‘10승’ 꿈을 꾸면서 제주도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임기영은 지난 11일 제주도 서귀포에서 시작된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동계 트레이닝 캠프에 참가해 박준표, 이민우, 이준영, 김명찬, 홍원빈 등 동료들과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임기영은 “결혼식 준비하면서 운동을 제대로 못 해서 여기에서 훈련하면 괜찮다 싶어 참가하게 됐다”며 “(아내도) 훈련하고 이런 거 이해해 주니까 잘 다녀오라고 해줬다”고 말했다.
‘건강하게 운동하기’에 중점을 두고 웨이트, 트레이닝 위주로 진행되는 이번 캠프에서 임기영은 특히 어깨에 신경을 쓰고 있다.
임기영은 “다른 팀 선수들과 처음에는 서먹서먹하기도 했는데 낮을 가리는 성격은 아니어서 먼저 인사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내가 했던 것과 다른 운동들도 있어서 배우기도 하고 웨이트, 힘, 근력적인 부분 등을 보강하고 있다. 어깨 위주로 하고 있는데 2017년 우승하고 어깨가 아팠다. 그 이후에 어깨에 신경을 많이 쓰고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로야구선수협 제주캠프 참가 KIA 박준표 등 동료들과 맹훈련
지난해 아쉽게 9승 머물러 ‘기록 없는 시즌’ 위해 체력 증점 스피드 끌어올리기 주력

지난 시즌 아쉽게 10승에 실패한 임기영은 올 시즌을 준비하면서 ‘10승’을 목표로 설정해뒀다.
지난해 휴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의 시즌 최종전 선발로 나온 임기영은 6.1이닝 2실점을 한 뒤 3-2에서 마운드를 내려오면서 첫 10승 달성에 성공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3-2로 앞선 9회초 마지막 수비에서 야수들의 실수 연발 때문에 승부가 3-3 동점으로 돌아가면서 임기영의 승리가 날아갔다. 경기는 KIA의 4-3 끝내기 승으로 마무리됐지만, 팬들에게는 아쉬웠던 승리가 됐다.
임기영은 “10승을 못 했으니까 올해 목표는 10승이다”며 “마지막 경기를 생각하면 10승이라는 숫자는 아쉽기는 하지만 괜찮다. 주변에서 더 아쉬워했던 것 같다. 9승을 했는데 7, 8월에 조금만 더 했으면 10승보다 1-2승 정도 더 할 수 있지 않

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10승이라는 목표를 위해 중요한 부분은 기록 없이 하는 것이다. 이는 곧 ‘체력’이기도 하다.
임기영은 “기록 없이 하는 게 우선인 것 같다. 체력적인 문제는 초반에는 못 느꼈는데 7-8월에는 나도 모르는 게 영향이 있었던 것 같다. 결과가 계속 안 나오고 경기운영 편차도 심했다”며 “체력이 고갈돼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몸이 힘든 줄 몰랐는데 시즌 막판에 보니까 한 경기 던지고 회복 되는 게 느리다고 느껴져서 체력에 신경 많이 쓰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평균자책점 5점대고, 기록도 썩 좋지 않다. 무엇보다 기록을 줄이는 게 제일 중요 하다”며 “규정이닝도 들어가고 싶다. 기록만 없으면 지난해보다는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구종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특별한 계획은 없다. 하지만 ‘스피드’에 중점을 두고 시즌을 준비하고 풀어갈 생각이다.
임기영은 “구종을 더 늘릴 생각은 없다. 다만 직구 스피드는 끌어올리고 싶다”며 “스피드가 좋을 때, 130후반 140초반할 때는 던지면서도 괜찮다고 느껴지는데 여기에서 구속이 떨어지면 상대하기 힘들다는 게 느껴졌다. 준비 잘해서 꾸준하게 올 시즌 목표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리그1, U22 선수 기용 지켜야 최대 5명 선수 교체

프로축구연맹 이사회서 변칙 운용 보완... 염기훈 선임 선수위원장 선임

U22선수 기용에 따라 2021시즌 K리그1 교체 선수가 최대 5명까지 확대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18일 축구회관 2층 다목적회의실에서 2021년도 제1차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열고 ▲K리그1 교체선수 확대에 따른 U22 의무출전 인원 조정 등 각종 규정 개정 ▲신임 임원 선출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등을 의결했다.
올 시즌 K리그1 경기에서는 최대 5명을 교체 선수로 활용할 수 있다.
국제축구평의회(IFAB)가 2021년에 개최되는 국내 경기에서 교체 선수의 수를 5명으로 하기로 하면서, K리그1 경기의 선수 교체 인원도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확대됐다.
교체선수가 5명으로 늘면서 K리그1 U22 의무출전 제도 조정이 이뤄졌다.
K리그는 2013년부터 U22 선수를 엔트리에 총 2명, 선발 라인업에 1명을 포함하는 ‘U22 의무출전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교체카드를

1장 사용할 수 없는 페널티가 주어진다.
올 시즌 교체선수가 5명으로 확대되면서 각 구단이 U22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4장만’ 활용하는 경우가 나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이사회는 U22 선수가 1명 이상 선발 출전하고, 선발명단과 대기명단을 합한 전체 엔트리(18명)에 U22 선수가 2명 이상 포함될 경우 5명까지 교체가 가능하도록 했다.
U22 선수가 1명만 선발 출전한 경우에는 교체 대기 중인 U22 선수를 투입해야 5명까지 교체할 수 있다. U22 선수가 교체 투입되지 않으면 교체카드를 3장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U22 선수 1명이 선발 출전했지만, 전체 엔트리에 U22 선수가 2명 이상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3명까지만 교체 가능하다.
U22 선수가 선발 출전하지 않으면 교체선수 수는 2명으로 줄어든다.
전체 엔트리에 U22 선수가 1명만 포함될 경우 엔트

리 인원이 17명, 1명도 포함되지 않을 경우 엔트리 인원이 16명으로 줄어드는 것은 기존 방침과 같다.
U22 선수가 대표팀에 소집될 경우 소집된 인원만큼 선발출장 의무와 엔트리 포함 의무가 면제되는 것도 기존과 같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지침 준수, 체육시설폐쇄, 구단 재정 악화 등을 고려해 올 시즌에 한해 R리그(리저브 리그)를 운영하지 않는다.
올 시즌부터 K리그 구단의 B팀이 대한축구협회 주관 K3-K4리그에 참가할 수 있게 된 만큼 이에 맞춰 ‘프로 B팀 운영 세칙’도 제정했다.
이사회를 통해 신임 임원 선출도 이뤄졌다.
한용수 현 사무총장이 부총재에 선임됐고, 조연상 현 연맹 사무국장이 사무총장을 맡는다.
신임 기술위원장은 박태하 전 연맹FC 감독이 선임됐다. 수원 삼성의 염기훈은 K리그22개 구단 주장들의 추천으로 신임 선수위원장이 됐다.
한편 이사회는 2021년도 연맹 사업계획을 심의해 369억 5000만원의 예산도 승인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뒤통수 가격 퇴장’ 메시 12경기 출전금지 위기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FC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고 753경기 만에 ‘레드카드’를 받은 리오넬 메시(34)가 최대 12경기까지 출전금지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AP통신은 19일(한국시간) “스페인축구협회 경기위원회가 조만간 메시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경기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메시는 최대 12경기 출전금지 징계를 당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메시는 18일 스페인 세비야의 올림피코 경기장에서 치러진 아틀레틱 빌바오와 2020-2021시즌 스페인 슈퍼컵과 파결승전에서 2-3으로 끌려가던 연장 후반 추가시간 아시에르 비알리브레와 경합 과정에서 뒤통수를 때렸다.
메시가 중원에서 왼쪽 측면으로 볼을 패스하는 과정에서 비알리브레와 몸싸움을 펼치며 첫 번째 충돌했고, 패스를 마친 메시가 곧바로 페널티박스 쪽으로 다시 쇄도하려고 하자 비알리브레가 또다시 어깨싸움을 걸었다.
순간 화를 참지 못한 메시는 오른손으로 비알리브레의 뒤통수를 가격했고, 비알리브레는 머리를 잡고 쓰러졌다.
주심은 경기를 중단시킨 뒤 비디오판독(VAR) ‘온 필드 리뷰’를 통해 메시에게 레드카드를 들어 올렸다.
2004-2005시즌부터 줄곧 바르셀로나 1군에서 뛴 메시가 프로 무대에서 퇴장당한 것은 753경기 만에 처음이었다.

“퇴장은 처음이야” 스페인 세비야 올림피코 경기장에서 열린 스페인 슈퍼컵(수페르코파) 결승전 FC 바르셀로나 대 아틀레틱 빌바오의 경기에서 바르셀로나의 리오넬 메시(34)가 퇴장하고 있다. 바르셀로나가 2-3으로 뒤지던 연장 후반 추가시간 메시는 빌바오의 아시에르 비알리브레(24)와 경합 과정에서 그의 뒤통수를 가격했고, 이에 주심은 비디오판독(VAR) 과정을 거쳐 메시에 레드카드를 들어 올렸다.

/연합뉴스

K리그 ‘아디다스 커넥스트21프로’ 공인구 채택

아디다스의 ‘커넥스트21 프로(CONEXT 21 PRO)’가 2021시즌 K리그 공식 사용구로 사용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올 시즌에 사용할 새로운 공식 사용구로 아디다스의 ‘커넥스트21 프로’를 채택했다.
커넥스트21 프로는 그라운드와 역동적인 움직임에서 영감을 얻은 대담하고 역동적인 디자인이 특징이다. 연결된 패널들은 전 세계 6개 대륙에 걸친 축구 연합의 통합을 상징한다.
또 FIFA 인증 기준을 통과한 무봉제 구조의 경기구로 그라운드에서 완벽한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게끔 했다.
K리그 공식구인 커넥스트21 프로는 다가오는 FIFA 클럽월드컵과 2021년도에 개최되는 FIFA 주관국제경기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K리그는 지난 2012년부터 아디다스의 경기구를 사용하고 있다. 아디다스는 경기구 공급과 함께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여울 기자 wool@

토트넘, 한국 팬들과 트위터 소통

계정 론칭 독점 콘텐츠 제공

‘손세이셔널’ 손흥민(29)이 활약하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가 한국 트위터 계정을 열고 한국 팬들과 소통 강화에 나섰다.
토트넘은 한국시간으로 18일 오전부터 한국 트위터 계정(@Spurs_KR)을 공식 론칭했다.
토트넘은 공식 한국 계정을 통해 ‘손흥민 선수와 함께하는 트위터 Q&A : #AskSonny’, ‘비하인더

신 플랏’ 등 손흥민에 대한 트위터 독점 콘텐츠를 제공하며 한국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트위터는 토트넘의 한국 트위터 계정 오픈을 축하하며 특별 이모지를 출시했다. 손흥민의 얼굴이 담긴 스페셜 이모지는 해시태그 #손흥민, #Sonny, #HeungMinSon, #NiceOneSonny, #토트넘을 사용한 트윗에 자동 적용된다. 해당 해시태그는 4월 18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